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2, pp.325-360
<https://doi.org/10.29212/mh.2024..132.32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1875년 운요함 포격 사건의 군사적 재구성

신호승 | 동북아역사재단

- 목 차
1. 서론
 2. 월미해협 통과와 정찰준비
: 1일차(9월19일) 16:00부터 2일차(20일) 13:00까지
 3. 한강하구 수로 및 강화도 정찰
: 2일차(9월20일) 13:40부터 21:00까지
 4. 강화도 및 향산도 포격
: 3일차(9월21일) 04:00부터 19:33까지
 5. 영종진 침탈
: 4일차(9월22일) 05:00부터 6일차(9월24일) 10:30까지
 6. 결론

초 록 운요함 포격 사건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과정에서 일본이 내세운 주요 명분 중에 하나였다. 이 때문에 이른바 '운요호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 등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성과 역시 축적되었다.

다만 이러한 연구는 당시 사건의 진행 과정 자체 보다 한일 관계의 진행 과정 등 이후 역사적 변화를 중심으로 검토하기 위한 전사로 활용되었다. 이 때문에 운요함 사건의 주요 논쟁 역시 일본의 의도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서는 운요함 포격 사건의 전개 과정을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진행 과정을 재 검토하였다. 특히 선박 및 무기 등 군사적 측면을 토대로 지리적 요소를 포함하여 해양적 특성 특히 조류의 변화와 유속 등 사건이 벌어졌던 서해안 일대의 환경까지 아울러 살펴보았다. 진행 과정을 군사적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운요함 포격 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 운요함, 운요함사건, 강화도사건, 조일수호조규, 포함외교, 영종진, 강화도, 일본해군, 조선군, 개항

(원고투고일 : 2024. 7. 10, 심사수정일 : 2024. 8. 17, 게재확정일 : 2024. 9. 7.)

1. 서론

한국 근대사의 시작을 1876년 강화도에서 조선과 일본 간에 체결된 ‘조일수호조규’를 기점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¹⁾ ‘운요함 포격 사건’²⁾은 일본이 조규 체결을 요구한 주요 명분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사에서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³⁾ 다만 이러한

- 1) 한국사연구회에서 국내 주요 대학의 교수 및 연구자 32명이 참여해 발간한 『시민의 한국사 : 제2권 (근현대편)』(한국역사연구회 지음, 서울 : 돌베개, 2022년)의 첫 장이 ‘개항기’이며 그 주요 사건으로 ‘운요호사건’을 다루었다.
- 2) ‘운요함’은 ‘운요호’로도 불리고, 이 때문에 이 사건을 ‘운요호 사건’으로 부르기도 한다. 당시 일본 해군에서 규정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전함의 경우 ‘함’으로, 수송선의 경우 ‘호’를 붙여 군함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였다. (『軍艦等級改定』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A24011319000, 大政類典・第二編・明治四年~明治十年・第二百二十一卷・兵制二十・軍艦(国立公文書館) 이때 운요함은 야마구치현에서 일본 해군에 헌납 형태로 편입하면서 전투함으로 분류되었고, 함명을 ‘운요함’으로 하였다.(『公文類纂 卷之26 目録』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CO9090401000, 公文類纂 明治4年 卷26 本省公文 艦船部(防衛省防衛研究所) 일본 해군 소속 전투함의 군사적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여기서는 ‘운요함’이라고 명칭을 통일하였다. 이와 함께 당시 일본 정부(태정관) 및 외무성은 이 사건에 대해 ‘明治八年朝鮮江華島(砲擊)事件’으로 명명하였다.(『公文別録・朝鮮江華島砲擊始末・明治八年・第一卷・明治八年 / 表紙・目次』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A03023622750, 公文別録・朝鮮江華島砲擊始末・明治八年・第一卷・明治八年(国立公文書館); 『表紙』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B03030136600, 対韓政策関係雑纂 / 明治八年朝鮮江華島事件(1.1,2,3-6.001)(外務省外交史料館)) 당시 보고에서는 행위 주체인 ‘운요함’을 생략한채 ‘강화도’라는 지명과 ‘포격’이라는 행위를 중심으로 사건을 지칭하였다. 강화도 사건이라고 지칭 할 경우 자칫 사건 발생 장소를 강화도만으로 한정할 수 있기에 여기서는 행위주체와 행위를 중심으로 서술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운요함 포격 사건’으로 용어를 통일하였다.
- 3) 운요함 포격 사건, 이른바 ‘운요호사건’(일명 ‘강화도사건’)과 관련한 연구 성과 등에 대해서는 김홍수의 연구(『운요호사건과 이토 히로부미』, 『韓日關係史研究』 33, 2009)에서 자세히 검토하였다. 1875년 조선과 일본 간의 교섭 연구는 운요함의 임무와 그 목적 등을 자세히 다루었다.(『1875년 한일교섭의 실패 요인』, 『한일관계사연구』 45, 2013) 이와 함께 박한민은 새로 발굴한 사료에 기반하여 운요함의 동해안

연구는 사건의 주체와 행위보다 한일관계 등 이후 역사적 변화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운요함 포격 사건의 주요 논쟁 역사의 의도성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⁴⁾ 이러한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는 사건 주체와 행위 등의 군사적 요소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운요함장 이노우에 등 군 관련 보고에 대해서도 군사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사건의 전개 과정을 군사적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선박과 무기뿐만 아니라 당시 조류의 변화와 유속 등 운요함 포격 사건이 벌어졌던 공간적 요소까지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시계열적으로 재구성하였다.⁵⁾

정탐부터 운요함 포격 사건까지 주요 행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당시 일본 신문기사를 교차 분석하여 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일본의 동해안 정탐 활동과 원산 개항」, 『한국근현대사학회』 107, 2023 ; 「1875년 운요함(雲揚艦)의 조선 연안정탐 활동과 신문보도」, 『한국사연구』 202, 2023 ; 「『丙子擾錄』을 통해 본 조일수호조규 체결」, 『한일관계사학회』 63, 2019) 김종학은 정치 외교사적 측면에서 운요호사건에 대한 주요 논쟁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조일수호조규는 포함외교의 산물이었는가?」, 『역사비평』 114, 2016) 일본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김홍수(앞의 글, 2009)에서 자세히 검토하였다. 추가로 일본 언론 동향을 다룬 團藤充己(「江華島事件と『東京日日新聞』: 「報道」と「言論」の両側面から」, 『史学雑誌』 123(1), 2014), 王琪穎(「江華島事件からみる福地源一郎の朝鮮論: 『東京日日新聞』の社説を中心に」, 『アジア地域文化研究』 12, 2016) 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 성과가 있다. 중국 측 연구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일 간의 연구에서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 당시 중국을 비롯한 외부적 요인을 살펴볼 수 있다.(高偉濃, 「中日關於江華島事件的交涉兩個問題淺談」, 『朝鮮歷史研究論叢(一)』, 延邊大学出版社, 1987 ; 王如絵, 「江華條約与清政府」, 『歴史研究』 1, 1997 ; 権赫秀, 「江華條約与清政府關係問題新論: 兼与王如絵先生商榷」, 『史学集刊』 4, 2007 ; 王如絵, 「再論江華條約与清政府: 兼答権赫秀先生」, 『東岳論叢』 32(6), 2011, 張天恩, 「江華島事件をめぐる日清交渉: 清末外交の二重性をめぐって」, 『ソシオサイエンス』 25, 2019 등) 또 다른 측면에서 교과서 서술 등을 중심으로 운요함 포격 사건을 검토한 연구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김종학, 앞의 글, 2016, 28쪽.

5) 여기서 주된 자료로 사용한 이노우에의 9월 29일 최초보고(이하 '최초보고') 및 10

2. 월미해협 통과와 정찰준비 : 1일차(9월19일) 16:00부터 2일차(20일) 13:00까지

조선에서 운요함의 침입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음력 8월 23일(양력 9월 22일)⁶⁾이었다.⁷⁾ 이양선이 출현했을 때 조선의 관방체계 핵심은 염하수로를 신속하게 봉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대응이 이뤄졌다. 첫 번째는 이양선에 대한 감시 및 조사, 이를테면 문정과 함께 봉화 등을 올리고, 파발을 보내 이양선 출현을 서울에 보고하여 중앙 차원에서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강화도 및 김포 등에 설치된 각 진지에 병력을 배치하고, 화포를 비롯한 군기를 점검하는 것이었다.⁸⁾

운요함이 9월 19일 영종도 인근 해역에 정박⁹⁾한 후 이미 사흘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이때 조선 정부에서 논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운요함을 여전히 ‘낮선 배’라고 표현하는 등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진부사가 이미 군사를 거느리고 덕포의 손돌목 등 주요 지점을 파수하였고,

월 8일 공식보고(이하 ‘공식보고’)는 주로 鈴木淳의 연구를 참조하였다.(『雲揚艦長井上良馨の明治八年九月二九日付け江華島事件報告書』, 『史學雜誌』 111(12), 2002)

- 6) 이후 날짜는 양력으로 통일하였다. 음력의 경우 별도 음력이라고 표기하였다.
7) 『승정원일기』 고종 12년(1875년) 8월 23일, ‘낮선 배가 내양에 들어왔으므로 역관 등을 선정하여 내려 고낼 것을 청하는 의정부의 계’
8) 신호승, 「병인, 신미양요 시기 방어 전략 변화와 강화도 관방시설의 구축」, □19세기 서구열강의 침입과 강화해양관방체제□, 인천문화재단, 2018, 95쪽.
9) ‘朝鮮国雲揚艦へ発砲ノ義ニ付御届’, 『雲揚 孟春 朝鮮廻航記事 明治8年』(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④ 艦船・陸上部隊 艦艇-139) (이하 ‘朝鮮国雲揚艦へ発砲ノ義ニ付御届’, 『朝鮮廻航記事』)

강화도와 인근 관방시설에도 이미 병력 배치가 진행 중이었다.¹⁰⁾ 다만, 병력을 배치한 기간이 점차 길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식량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¹¹⁾

운요함장 이노우에의 보고를 살펴보면 당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최초보고에 따르면 운요함이 월미도¹²⁾ 인근 해역의 정박지에 도착한 것은 19일 16:32이었다. 이곳에 정박했다는 것은 한강 하구를 통해 서울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월미해협을 통과한 이후에는 모래톱과 암초 산재하여 항로를 벗어나 운항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사실상 강화도 한강 하구 이외에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항로가 없었다. 만약 청국 잉커우로 가기 위한 항로를 찾는다면 월미해협을 통과하기 보다는 돌아가는 것이 정상적이었다.

그럼에도 운요함은 20일 08:30에 월미도 인근 해역에서 출발하여 영종도와 월미도 사이의 해협을 지나 10:00에 매도 남동쪽 해역에 정박하였다. 불과 5~6Km 이하의 거리를 1시간 반에 걸쳐 이동하였다. 이렇게 오래 걸린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영종도와 월미도 사이의 해협 때문이었다. 이후 일본 해군에서 ‘월미(도)해협’¹³⁾을 측량하고 별도로 해도를 작성할 정도로 당시 이 구간을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¹⁴⁾ 조선 역시 월미도와 마주

10) 『각사등록』 7, 忠淸道篇 2 (346b ~ 346c) 8月23日

11) 『승정원일기』 고종 12년(1875년) 8월 23일, 맑음, ‘덕포의 손돌목에서 파수하는 군 병들에게 쌀을 획급해 보내도록 분부할 것을 청하는 의정부의 계’

12) 이 섬에 대해 김홍수 등의 연구에 따라 영종도 동쪽에 위치한 ‘월미도’로 번역했지만, 이노우에의 보고에서는 ‘贅月尾島’로 되어 있다. 월미도를 ‘贅月尾島’로 표기한 지도는 현재 확인된 것으로는 ‘조선전도’(國立公文書館藏, 資料番号: 178-487, 1876년 간행)의 좌하단에 포함되어 있는 ‘漢江口’가 있다.

13) 영어식으로 ‘Olbee strait’ 이라고 해도 이름을 붙였다.(『大日本海岸実測図』 중 ‘朝鮮國西岬濟物浦泊地畧測圖’, 國立公文書館デジタルアーカイブ 소장 청구번호 特77乙-0001) ‘Olbee’는 당시 월미도의 영어식 표현이다.

14) 『大日本海岸実測図』 중, 國立公文書館デジタルアーカイブ 소장 (청구번호 特77乙-0001)

보고 있는 곳에 진을 배치해 한강 하구 수로에 접근하는 선박을 감시하였다.¹⁵⁾

당시 서해안에 인접하여 운항할 때 가장 우려하던 사항은 조수간만의 차와 각종 암초를 비롯해 모래톱과 갯벌 같은 해저 지형이었다. 운요함은 일본 해군 군함 분류 기준으로 6등급 소함으로¹⁶⁾ 흘수 역시 2.4m에 불과하였지만,¹⁷⁾ 직전 점검에서 증기기관에 문제가 있어 신규 제조를 요청한 상태였다.¹⁸⁾ 이런 상황에서 모래톱 등에 좌초될 경우 자력으로 빠져나오기 어려울 수 있었다. 직전에도 수심이 낮은 곳에 들어갔다가 ‘상당히 곤란’을 겪은바 있어 제대로된 측량조차 이뤄지지 않은 곳을 운항한다는 것은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¹⁹⁾

서해안은 수많은 섬이 켜켜이 놓여 미지의 세계와 같아 당시 해도 역시 여전히 공백이었다.²⁰⁾ 해안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이 불확실하였고, 심지어 파편적이었다. 각국에서는 이런 파편 조각을 모아 해도를 만들었지만 한계가 있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노우에가 출발전 파악한 정보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15) 『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8월 13일 ; 『각사등록 31, 충청감영계록』 고종 12년(1875) 8월 23일

16) 「丁4号大日記 諸艦等級定の件に付乘雲揚艦の義云々病院伺」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C09090383200, 公文類纂 明治4年 卷24 本省公文 艦船部(防衛省防衛研究所)

17) 신미양요 당시 운용되었던 모노카시호(2.7m)와 팔라스호(2.8m)('List of Vessels of the United States Navy', i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Annual List of Merchant Vessels of the United States, No.901* (1901), p.395.)과 비슷한 8척(『記録材料・海軍省報告書第一』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A07062089000, 記録材料・海軍省報告書第一(国立公文書館, 이하 '海軍省報告書第一')이었다.

18) 「英国ニ於テ竜驤外二艦ノ汽缶製造」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A24010283100, 太政類典・第二編・明治四年~明治十年・第二百二十二卷・兵制二十一・軍艦二(国立公文書館)

19) '雜錄', 『朝野新聞』(1875.10.13.)

20) 김중근, '19세기 중반 영국 수로국 제작 해도에 나타난 한반도 해안선 및 지명 기재 양상의 변화', 『韓國古地圖研究』 15(2)(2023), 110~111쪽

이 때문에 나가사키항에서 인천까지 거리(약 458해리)와 운요함의 운항속도(10knot)를 고려하면 약 46시간 정도면 충분하지만 실제로는 5일 이상 걸렸다.²¹⁾ 이노우에가 서해안과 인접하여 운항한 결과였다.

19일 16시쯤 영종도 인근 해역에 도착했지만 이노우에는 바로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월미도 인근에서 정박하고 다음날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주간에 운항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20일 해상박명을 고려하여,²²⁾ 04시 기상하여 05:50 운항 준비를 시작했지만,²³⁾ 운요함이 출발한 것은 08:30이었다. 조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조류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운항하였다. 음력 8월 21일 07:00을 전후하여 영종도 인근 해역은 수위가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점차 조수가 빠지면서 유향 역시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 당시 운요함이 월미도에서 물치도 방향으로 출발한 것은 이러한 흐름이 바뀐 이후였고, 점차 유향이 물치도에서 월미도 방향으로 강해지는 가운데 흐름에 역행하여 해협을 통과하였다.

21) 1897년 '조선전도' 이정표 참조

22) 1875년 9월 20일 영종도 일출시간 06:18이며, 일몰은 18:34이다.(한국 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일출일몰시각계산 홈페이지 참조)

23) Matthew Brenckle, *Daily Routine at Sea on American Warships in the Age of Sail* (Boston A publication of the USS Constitution Museum, 2019), p. 4.

[지도 1] '月尾島海峡略測図'(1877)²⁴⁾[지도 2] Map 'De La Riviere de Seoul(1871)²⁵⁾

당시 해도에 따르면 월미도와 영종도 간의 항로 간격은 약 400미터 이하였다. 해저 지형은 모래였지만, 진입부는 진흙으로 변화가 심하여 수심 측량이 어려워 항해가 쉽지 않았다. 1876년 일본 해군이 측량한 해도에 따르면 양쪽 기슭의 수심은 영종도 쪽이 4.75m, 월미도 쪽은 5.75m였다. 중앙부 수심은 6.5m였다. 1871년 프랑스 해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진입부의 수심은 9m에서 7m로 낮아지다 가장 좁은 구역에서는 다시 16m 정도로 깊어지는 등 기복이 있었다. 측량 때마다 차이가 발생하여 수년전 측량한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란 어려웠다. 실제 이전 해도에 대해 이노우에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이후 이노우

24) '朝鮮国京畿道月尾島海峡略測図'(1877), 「国立公文書館デジタルアーカイブ」 소장

25) Felice Beato, Map 'De La Riviere de Seoul, English, 이탈리아 태생, 1832~1909, J. Paul Getty Museum 소장

에는 해도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차이가 있다고 회고하였다.²⁶⁾ 운요함은 월미해협을 통과한 이후 정박하고,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았다.

3. 한강하구 수로 및 강화도 정찰 : 2일차(9월20일) 13:40부터 21:00까지

이노우에는 13:40에 단정을 타고 강화도를 향해 이동하였다. 이때 단정에는 소총 등으로 무장한 21명이 탑승하였다.²⁷⁾ 이노우에는 ‘측량 및 제반 사항을 조사하고, 당국 관리를 면회하여 “万事尋問”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²⁸⁾ 하지만 운요함이 정박한 곳의 지척에는 영종진이 있었고, 여기에는 조선 관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노우에가 향한 곳은 영종진과 정반대에 위치한 강화도였다. 실제 행위와 보고한 이유가 상호 모순이지만 현재 남아 있는 기록만으로 이를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²⁹⁾

26) 김홍수, 앞의 책, 2022, 68쪽.

27) 김홍수, 『운요호 사건과 강화도 조약』, 서울:동북아역사재단, 2023, 68쪽. 운요함의 적재선은 ‘七米 カッター’으로 탑승 정원은 28명이다.([癸2号大日記 雲揚艦申出 桧渡方]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C09110687300, 公文類纂 明治5年 卷27 本省公文 土木部2(防衛省防衛研究所))

28) 최초보고에서 ‘測量及諸事檢搜且当国官吏へ面会万事尋問ヲナサント’라고 하였다.

29) 문제는 이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이노우에의 결과 보고를 교차 검증할 수 있는 항해일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본 해군 규정상 항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다.('航泊日誌ノ沿革', 日本海軍大臣官房 編, 『海軍制度沿革』8, 도쿄:日本海軍大臣官房, 1940, 573頁) 이 때문에 사후 결과 보고에 해당하는 이노우에의 보고와 다른 승조원의 기록 및 증언 등 관련 기록은 매우 의미가 있다.(박한민, 앞의 글, 2023 참조)

대략 이 시각부터 매도 인근의 유향이 바뀌기 시작해 정조기에 접어들었다. 정조기가 끝난 이후에는 물치도에서 강화도로 조류가 흐르기 시작하였다. 14:30을 전후하여 세어도까지 창조류로 흐름이 바뀌었고, 15시쯤에는 염하의 흐름도 바뀌었다. 이 노우에가 단정을 타고 이동하던 시점에는 이러한 조류의 흐름을 탈 수 있었다.

여기서 이노우에는 왜 단정을 타고 갔는지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단정의 주요 목적은 상륙을 위한 것이었다. 당시 조선의 해안과 항구는 서양식 선박이 접안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단정을 이용해 상륙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영해 및 영토 침범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일본 해군은 이와 관련해 조례 등에 반영하여 적용하였다.³⁰⁾ 따라서 조선의 영해와 영토를 침범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변명거리가 필요하였다. 첫 번째는 왜 일본 군함이 관할 지역을 벗어나 타국의 해역까지 왔는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왜 상륙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노우에는 동해안 정탐시에는 타국에 있는 일본인 보호와 장작과 식수가 떨어져 이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³¹⁾ 하지만 한강 하구 수로 일대에서 이를 그대로 내세우기란 어려웠다. 이전까지 조선은 명확하게 영해를 주장했고, 강화도를 중심으로 설치한 관방시설은 이러한 조선의 태도를 잘 보여주었다.³²⁾

30) 이미 일본은 1870년 자국 영해를 '3리'로 선언한 전례가 있다.(「李仏交戦二関シ局外中立ヲ布告シ艦隊ヲ編制ス」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A1507044290 0, 太政類典・第一編・慶応三年~明治四年・第五十六卷・外国交際・条約(国立公文書館))

31) '雲揚艦回航記事御届 8年5月より7月', 『朝鮮廻航記事』

32) *The Hour*, 25 March 1875, 'NEWS FROM COREA.' 심행일기에도 '사유를 먼저 통지하지 않고 곧장 방수하는 곳으로 진입했으니, 변방 수비병의 발포 또한 부득이한 일'이라고 하였다.(신현, 앞의 책, 2010, 112쪽)

오후 1시 40분 단정으로 江華島를 향해 나아갔다. ①이 섬에서 ‘海上一里’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②이 섬의 남동쪽 끝에 흰 벽으로 된 포대가 있다(이를 제2포대라고 한다). 4시 7분 그 앞에 이르러 보니 병비가 보잘 것 없고, 인가는 겨우 7~8채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16시쯤 단정은 강화도에서 ‘海上一里’³³⁾ 떨어진 작은 섬에 도착하였다. 이노우에의 20일 행적과 관련하여 기준점이 되는 곳 이기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서가 되는 것은 강화도에서 ‘海上一里’ 떨어졌다는 것(①)과 이 섬의 남동쪽 끝에 흰 벽으로 된 포대(②)가 있다는 정도이다. 단서 ①은 강화도의 어디를 기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海上一里’에 속하는 섬은 여러 섬이 있기 때문에 섬을 특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20일 이곳을 출발, 항구로부터 5리 정도 떨어진 곳에 정박했다. 이날 함장을 비롯하여 사관과 해병, 수부와 화부가 같이 보트를 타고 3리 정도 상류로 거슬러 올라갔다. 이 근처 해안에 성으로 생각되는 곳이 세 군데 있었다. 그 포대로부터 우리 보트를 향해 갑자기 크고 작은 포를 난발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 소총을 쥐고 여기에 응전하였으나 그 기세를 당해내기는 어려웠다. 다행히 도 본함까지 무사히 퇴각했다.³⁴⁾

33) 여기서는 영국식으로 해상1리(또는 1리) 즉, 1해리(1,851.7m)를 적용하였다. 이노우에와 단정에 동승한 스즈키의 편지를 교차하여 살펴보면 ‘一里’의 기준이 좀더 명확해진다. 스즈키는 1리를 1해리로 사용하였고, 이것은 해군에서 통용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34) ‘雜錄’, 『朝野新聞』(1875.10.13.)

[지도 3] '朝鮮国西岸漢江口頂山泊地略測図' (1876)³⁵⁾



이와 관련하여 스즈키가 무엇을 보았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바로 정박(약측)도이다. 그 이듬해 2월 日進艦이 한강 하구를 측량하고 작성한 ‘漢江口頂山泊地略測圖’³⁵⁾이다. 정박도의 경우 해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지형 지물을 표시하였다. ‘漢江口頂山泊地略測圖’에 표시된 것 중에는 지형 이외에도 몇몇 인공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의 관방시설이다. 초지진의 경우 돈대와 연무장, 포대 등을 자세히 표시하였다. 해도에서 초지진의 좌측 해안선을 따라가면 그 끝에 또 다른 인공 건물(‘口’자)(그림 내 점선 원)이 확인할 수 있다. 위치 및 가시선 등을 고려할 때 섬암돈대로 추정된다. 반면, 장자평돈대의 경우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산도 바로 뒤의 섬이 상당부분 생략되어 점선 정도로 표시된 것을 고려할 때 섬에 가려진 부분은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박도는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그려졌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여기서 스즈키가 본 것을 확인한 이유는 이노우에가 보고에서 언급한 제2포대가 위치한 섬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즈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상류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강화도에 세 개의 성이 보였다고 했다. 이 기록을 비슷한 시기 및 장소에서 그려진 ‘漢江口頂山泊地略測圖’를 근거로 찾아보면 정산도가 제2포대가 있었다는 섬으로 유력하다. 문제는 현재 강화도 인근 섬 중에 정산도가 없다는 점이다.

35) ‘朝鮮国西岸漢江口頂山泊地略測圖’ (1876) (国立公文書館デジタルアーカイブ) 그림 내 점선 원은 필자.

36) ‘朝鮮国西岸漢江口頂山泊地略測圖’ (1876) (国立公文書館デジタルアーカイブ)

| 현재 (2024) ³⁷⁾ | 1872년 ³⁸⁾ | 1872년 ³⁹⁾ | 1871년 ⁴⁰⁾ | 1875년 ⁴¹⁾ | 1876년 ⁴²⁾ | 1884년 ⁴³⁾ | 1918년 ⁴⁴⁾ |
|--------------------------|----------------------|----------------------|----------------------|----------------------|----------------------|----------------------|----------------------|
| 황산도 (좌측 소항산도) | 頂山島 (좌측 息島) | 頂山島 (좌측 息島) | l. Louise Hasmeui | 頂山島 | 頂山島 | 頂山島 (좌측 루이島) | 黃山島 (좌측 小黃山島) |
| 항산도 (아래 소항산도) | 率島 | 率島 | l. duPiloti | - | | パイロフト島 (아래 산반島) | 駕嶼 |
| 동검도 (우측 동그랑섬) | 東黔島 | 東黔島 | l. du S | - | | トリールト島 | 동검도 (우측 小頂山島) |
| 세어도 (좌측 지내섬) | 세어도 (아래 鷹島) | 세어도 (아래 鷹島) | l. Sierou | - | | シエロウ島 | 세어도 |

결국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현재 황산도이다. 구체적인 축조 연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현 황산도에는 신미양요 이후 초지진의 방비를 강화하면서 포대를 축조하였다.⁴⁵⁾ 이와 함께 운요함이 침범했을 당시에 조선 측 기록에 일본이 황산도를 방화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온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⁴⁶⁾ 다만 현재 황산도의 경우 초지진에서 거리가 3.4Km(약 2해리)에 이른다. 따라서 현재 황산도가 당시 황산도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황산도(소항산도 포함)는 1872년 지방도를

37) Naver 지도 (2024.4.8. 검색)

38) '1872년 지방도' (서울대 규장각 소장)

39) '1872년 강화부전도' (서울대 규장각 소장)

40) Felice Beato, 'Map 'De La Riviere de Seoul' (1871) (Getty Museum 소장)

41) '조선전도' (1875) (U.S. Library of Congress 소장, Number 84697511)

42) 朝鮮国西岸漢江口頂山泊地略測図 (1876) (国立公文書館デジタルアーカイブ)

43) 朝鮮西岸漢江近海図 (1884) (日本 国立国会図書館の所蔵 청구기호 YG4-Z-L-7286)

44) '김포 1:5만 지도' (육지측량부) 1918년 발간 (종로도서관 소장)

45) 『승정원일기』 고종 11년 3월 20일

46) 『승정원일기』 고종 12년 8월 24일

살펴보면 ‘牽島’였다. 일제 강점 이후 1918년 육지측량부에서 간행한 지도를 살펴보면 ‘駕嶼’였고, 이후 몇 차례 변화를 겪다가 현재 향산도로 바뀌었다.⁴⁷⁾ 반면 초지진 인근의 현 향산도는 지금 그 일대가 간척되어 육지처럼 변했지만, 과거 염하 하구의 대표적인 섬이었다. 1872년 지방도에서는 ‘項山島’라고 표기했지만, 1876년 ‘漢江口頂山泊地略測圖’에는 ‘項’과 비슷한 한자인 ‘頂’을 사용해 ‘頂山島’라고 되어 있다. 섬 모양과 바로 옆의 소향산도 모양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1880년대까지 ‘정산도’로 불리다가, 1918년 지도에서는 ‘향산도’로 바뀌었다.⁴⁸⁾ 즉, 현재 ‘향산도’는 1875년에는 ‘향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노우에는 16:22에 또 다른 포대 앞에 도착했다고 기록하였다. 향산도에서 대략 15분 정도의 시간 안에 단정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한다면 초지진까지 도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이 시간대 조류의 흐름이 밀물이기 때문에 단정을 타고 초지진 앞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22분에 ③-1강화도 남단 세 번째 포대 앞에 이르렀는데, ④항로가 좁고 암초 등이 흩어져 있으며, ③-2해안의 약간 높고 평평한 곳에 하얀 벽의 포대가 있다. ③-3그 가운데 진영(수군방영인가) 같은 것이 있다. ③-4남쪽 해안의 한 단 낮은 곳에 ‘強台場’이 있다. 이곳은 용감한 병사들로 하여금 이곳을 방어할 때 실로 유리한 요충지라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었다. ⑤이곳에 상륙할 생각이었지만, 해가 아직 높아,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상륙을 결심하고,

47) 해방 때까지 ‘가서’로 불리다가 1970년대에는 잠시 ‘송서’로 불렸다. 1980년대에는 ‘대송여’로 불리다가 2010년대 ‘향산도’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2012년 10월 국토지리정보원 고시로 정식으로 ‘향산도’가 되었다.

48) 특이한 점은 1918년 지도에서는 동검도 우측의 섬 현재 동그랑섬이 소향산도라고 불렸다는 점이다.

20일 13:40에 운요함에서 출발한 이노우에는 16:07 제2포대(항산도 포대)를 거쳐, 16:22에는 제3포대(초지진, ③-1) 앞에 도착했다. 이노우에는 제3포대를 방어에 유리한 요충지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요충지에 설치된 군사시설(③-2, ③-3, ③-4)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였다. 심지어 신미양요 당시 조선에 대해 무지한 미군조차 이러한 사실은 바로 알아차릴 정도로 상식적인 것이었다.⁴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노우에는 상륙하기로 마음먹었고, 심지어 공식 보고에도 그 내용을 포함하였다. (⑤) 이것은 상륙을 결심한 내용이 군 보고의 특성상 임무와 관련된 것으로 이노우에가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제3포대에서 이노우에는 시간적 여유를 고려해 좀더 정찰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했다. 하지만 16:30경 이노우에의 보고에 따르면 조선군의 갑작스런 사격으로 교전이 시작되었다. 양측의 교전은 16:57까지 이어졌다. 일본군이 사격을 멈춘 이후에도 조선군의 사격은 과열되어 3분간 더 공격하여 17:00까지 이어졌다고 이노우에는 보고하였다. 이노우에는 당시 상황을 분 단위로 세세하게 구분하여 보고하였다. 그것은 이 내용이 교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후 보고에서 변경된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일본 측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49) Report of Rear Admiral John Rodgers, 3 June 1871, in *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 of the Navy on the Operations of the Department for the Year 1871* (Washington : GPO, 1871), pp. 275-277.

| 인용문 A (9월 29일 최초 보고) | 인용문 B (10월 8일 공식 보고) |
|--|---|
| 본 함의 임무는 해로조사로 서해안 순항 중 | 하관은 저번에 대마도 해만을 측량한 후, 조선의 동, 남, 서해안으로부터 ㉠중국의 잉커우 부근까지 항로 연구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항했다. |
| (중략) | (중략) ㉡이곳에 상륙하여 良水를 청구하려 했다. |
| 30분쯤 右營門及砲台 앞을 지날 때, ㉢단정을 노리고 갑자기 ㉣1영문과 포대에서 대포와 소포를 난사하는 것이 마치 ㉤연달아 비가 쏟아지는 것 같았다. | 위의 營門 및 포대 앞을 지나려 하자 갑자기 ㉢그들이 우리 단정을 향해 총포를 交射하는 것이 매우 격렬했다. |
| ㉣잠시 행동을 멈추려 해도 끝내 진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 나는 속히 ㉢배의 거동을 제지하여 탄로를 피하려 했다. 그러나 ㉢본 정이 물을 거슬러 올라 가려하자 조류가 하류를 누르는 힘에 탕고, ㉢回艇하려 하자 逆潮에 저지되었다. 또 ㉣상륙하여 그 까닭을 물으려 하자 탄환이 빗발쳐서 항로를 나아갈 수도 물러날 수도 없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졌다. |
| | 이에 뜻을 ㉢단정의 방어와 일선의 보호에 두고 |
| 마침내 그 날 준비한 소총으로 응수하였고, 잠시 동안 교전을 벌이다가, | 수부로 하여금 포대에 소총을 발사하도록 명령했으며 |
| | ㉢가지고 온 號火를 발사하여 위험을 我艦에 알리고 |
| ㉡-2조선군(필자)은 다수의 인원으로 포대에서 대포와 소포를 난사하였고, 이노우에 등(필자)은 단지 소총 14~15정만 가지고 있어 맞서 싸워 이익이 없다. ㉢그래서 일단 귀함한 뒤 본 함이 이에 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57분에 사격을 멈추었다. | |
| 하지만 ㉢조선군(필자)은 여전히 포대에 병사를 배치하고 발포하는 것이 더욱 과열되었다. ㉣17시에 이르러서야 겨우 멈추었다. | |
| 9시에 모두 무사히 본선으로 돌아갔다. ⁵⁰⁾ | 서서히 退航했다. |

9월 29일 최초보고(인용문 A)와 10월 8일 공식보고(인용문 B)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인용문 B에는 중국 잉커

50) 김홍수, 앞의 글, 2009, 257~258쪽.

우라는 목적지(㉠)와 식수를 구하러 왔다는 이유(㉡)가 추가되었다. 급수라는 이유를 추가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단정으로 접근한 목적과 이유 등을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 경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영종도가 지척에 있었음에도 강화도까지 찾아간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남아 있었다. 나아가 식수 공급 만으로는 왜 한강 하구까지 왔는가라는 질문에 답변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청국의 잉커우까지 항로 연구로 가던 중이라는 이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었다.(㉢)⁵¹⁾

무엇보다 조선군과 교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은 해석에 따라 마치 이노우에가 자초한 것처럼 해석할 수 있었다. 비록 단정을 노리고(㉣) 사격했다고 주장해도 그 뒤에 붙은 ‘亂射’(㉤)와 상충되었다. ‘亂射’는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어지럽게 사격’하는 것이지만, 군사적 관점에서 사격 방법과 연관지어 해석하면 ‘총을 제대로 겨냥하지 않고 아무 곳이나 마구 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선군 사격이 조준을 결여한 것으로 단정을 위협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 때문에 탄환이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비유하여, 마치 화망 안에 들어간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⁵²⁾ 이처럼 인용문 A에서 조선군의 사격이 현실적 위협이 되었다는 언급은 간접적 표현뿐이었다. 오히려 대응 사격이 이익이 없다고 평가하였고, (㉦) 조선군의 사격이 일본군의 대응 사격과 사실상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보고하였다.(㉧, ㉨)

반면 인용문 B에서 ‘亂射’는 ‘交射’로 바뀌었다.(㉩) ‘交射’의 경우 이어지는 설명에서도 나오지만 ‘탄로’가 목표를 중심으로 서

51) 김홍수, 앞의 책, 2023, 84~93쪽

52) 스즈키의 편지에서도 ‘난발’이라고 하여 조선군의 사격이 군사적 측면에서 최소한 탄착지점이 일정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雜錄, 『朝野新聞』(1875.10.13))

로 교차하여 사격하는 것으로 명백히 조준사격하는 것이었다. (㉔) 사격은 언제든지 정조준으로 바뀔 수 있어 생명의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었다. 이런 위협 때문에 탄로를 피하거나, (㉔) 사격 구역을 벗어나는 방법(㉒, ㉓)을 시도하는 것은 교전을 회피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류 등의 문제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보고하였다. 중국에는 조선군이 갑작스럽게 사격한 교전 이유를 묻기 위해 상륙까지 고려했지만, (㉔) 조선군이 계속 사격하며 상륙을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대응 사격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 경우 상호 교전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인용문 A에서도 교전 책임이 조선군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조선군보다 3분 먼저 사격을 중지했다고 강조하였다. (㉕) 일본군의 사격 중지에도 불구하고 조선군은 ‘過烈’하여 사격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㉖, ㉗) 하지만 이노우에의 보고는 당시에 그다지 설득력이 없었다. 조선군의 포대처럼 흑색화약을 사용한 전장식 화포의 특성상 설사 ‘過烈’ 운용해도 그 한계가 명확했다. 결정적으로 3분이라는 시간은 책임을 조선군으로 돌리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당시 조선과 일본에서 운용 중인 화포의 특성상 발사 속도, 소음과 매연 같은 전투 환경 등을 고려할 때 3분은 오히려 상대의 행동에 따라 즉시 대응 사격을 중지 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노우에가 분 단위로 상세하게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은 전부 삭제되었다.

오히려 단정에 타고 있던 이노우에 등의 소속을 소속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⁵³⁾ 운요함에 일본국기를

53) 海軍服制及陸軍徽章ヲ定ム(1870.12.25.), A15070878800. 다만 영국식 복식을 그

계양했다해도 물치도 인근에 있어 보이지도 않았다. 설사 운요함이 아산만에 잠시 정박했을 때부터 추적하기 시작하여, 물치도 인근에서 정박한 후 단정으로 옮겨타고 강화도 인근까지 올라온 것을 강화도의 조선군이 이미 알고 있다고 해도 모른다고 하면 일본 측에서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단정에서 신호를 보내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㉔)는 식으로 공식 보고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렇게 공식보고를 상황에 맞게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다. 인용문 B를 보면 “본 정이 물을 거슬러 올라 가려하자 조류가 하류를 누르는 힘에 뒀고”,(㉕) “回艇하려 하자 逆潮에 저지되었다.”(㉖)라고 조선군의 조준사격에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염하의 거센 조류를 헤쳐나가고자 했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였다. 이것은 이미 조류의 방향이 밀물인 상황에서 왜 염하수로에 진입했는가에 대한 것이다.

조선군의 사격은 이노우에의 표현을 빌리자면 ‘난사’로 사실상 피해가 발생하기 어려웠으며, 이를 통해 조선군의 적대적 행위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만약 조선 측에서 이노우에 보고의 ‘난사’를 근거로 접근하는 단정을 상대로 단순히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더욱이 이노우에가 물을 구하러 왔다고 주장하면서 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요충지 군사시설에 심지어 소총 등 무기를 소지한 채 조선군 군영에 상륙하려 했다는 것은 충분히 다른 의도를 의심할 수 있었다.

1875년 5월 이노우에가 받은 명시적 임무는 ‘대마도와 조선 사이의 해로 연구’⁵⁴⁾였지만,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임무의

대로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양선 승무원과 이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54) 「雲揚艦外一艘對州朝鮮海路廻航ノ儀屆」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A01100106200, 公文録・明治八年・第五十一卷・明治八年五月・海軍省伺(布達)(国立公

목적은 서계 문제 등으로 난항이 이어지는 국교 재개 협상을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교섭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교섭 과정에서 군함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하였다. 무력시위 이외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그 무엇도 없었다.

국교 재개 협상 등을 담당한 모리야마 등 역시 운요함 등에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⁵⁵⁾ 하지만 운요함의 1차 도한 당시 무력시위와 동해안 정찰 등은 교섭을 촉진시키기 보다는 중단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⁵⁶⁾ 오히려 운요함 도한 이후 ‘그들이 우리의 진퇴에 매우 주의하는 때에 군함이 잇달아 이르는 것을 보자 더욱 그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졌다. 히로쓰가 처음부터 지목하여 통화의 요구로 삼았던 군함은 변해서 거절의 성루로 되어, 범례가 옛날과 다르며 허용할 수 없다는 확답을 얻었다’⁵⁷⁾고 하였다. 반면 동해안 정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조선군을 비하한 이노우에의 입장에서는 무력시위를 통해 일본의 우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결과였다.

4. 강화도 및 향산도 포격 : 3일차(9월21일) 04:00부터 19:33까지

20일 정찰은 별다른 소득없이 끝났다. 조선 측 기록을 살펴보

文書館)

55) 『朝鮮理事誌』(1875.5.26.)

56) 「7. 朝鮮理事日表(副本)/4 自明治八年二月二日至同年十一月四日」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B03030133200, 對韓政策關係雜纂/日韓尋交ノ為森山茂, 広津弘信一行渡韓一件 第六卷(1.1.2.3-4_006)(外務省外交史料館)

57) 김홍수, 앞의 책, 2023, 46쪽 재인용

면 초지진 등의 교전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찾을 수 없다. 무엇보다 조선 측의 대응 방식은 경고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단정을 회피하여 사격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것은 탄착지점을 통해 대략적으로 그 의도를 알 수 있다. 특히 탄착지점이 계속 반복되었다면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이런 상황은 21일에도 반복되었다.

인용문 C

21일, 날씨 맑음. 오전 4시 惣員을 기상시켜 증기통에 점화하였다. ①8시 뚝대에 국기를 게양한 후 분대 정렬하고, 오늘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어제 我 단정으로 출발하여 측량할 때 제3포대에서 한 번의 심문도 없이 포를 난사하여 크게 당혹스러웠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그때는 국욕을 당하는 것이며, 또한 군함의 직무를 결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들의 포대를 향해 그 죄를 공격하려 한다. 모두 그 직무를 받들어 국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해륙 공방전 중에 정숙하고, 만사 명령에 따라 이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군법을 언도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①8시 30분 정박을 풀고 천천히 전진하고, 포수들은 위치를 정렬하였다. 9시 18분 각 포에 발사탄을 장전하고, ②10시 20분 제2포대 앞을 통과하였다. 계속 이동하여 42분에 제3포대 앞에 도착했다. 즉시 포대에 접근하고자 모두 切齒했지만, 아무래도 멀리까지 수심이 얇고, 또 암초가 흩어져 있어 다가갈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16町⁵⁸⁾ 떨어진 곳에 닻을 내리고(이곳조차 조류가 거세 배를 멈출 뿐 배가 자유롭지 못해 매우 곤란했다), 곧바로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40斤포를 쏘고, 8분 후에 적(조선군_필자)도 역시 발포하였다.⁵⁹⁾ 서로 교전을 벌였다. 그러나 ③그들이 쏘는 총

58) 일본 거리상 1町을 109m로 계산하면 拾六町은 1,744m이다.(『官報』 1891年03月24日)

탄은 대략 11~12扨⁶⁰로 사거리도 6~7町이었다. 우연히 한 발의 멀리 날아왔지만, 함선으로부터 1~2町 떨어진 바다에 떨어져 하 나도 유효하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장전과 발포 사이에 수십 분이 걸렸다. 운요함의 110斤, 40斤 함포에서 발사한 탄환은 포대에 명중하여, 홍장을 砲却하는 것 두 곳을 실제로 확인하였다. 아침부터 서로 멀리 떨어져 경합해도 급히 결말이 나지 않았다. 비록 육전(陸戰)을 도모하려 해도 아무래도 멀리까지 물이 얇고 펄이 깊어 단정은 물론 걸어서 조차 갈 수 없었다. 이에 소수의 인원으로 상륙해도 전혀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만두었다. 이 또한 다행이다. 이때가 벌써 점심식사 할 때라 12시 44분에 전투를 중지하였다. 오전 10시 42분부터 지금까지 1시 58분 동안 총 27발의 탄환을 소비하였다.⁶¹⁾

우선 21일 보고를 살펴보면 조선군과 교전 상황에서 탄착지점까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노우에는 21일 아침 8시에 일본기를 게양했다는 내용을 보고에 포함하였다. ⑥ 전날 단정으로 정찰할 당시에는 일본 국기의 게양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국기 게양은 의도적 행위로 볼 수 있다. 해양을 통한 교류가 점차 증가하면서 국가의 권위를 빌려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양상은 선박에도 국적을 부여했다. 이때 국기는 국적을 표시하는 중요한 근거였다. 영해라도 최소한 통행의 자유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선박을 이른바 ‘영해의 섬’이라는 인식과 함께 영국 등 열강에서 주장하였다.⁶²⁾ 이러한

59) 운요함의 무장은 百斤シヤント砲×1門, 四十斤フレッケレー砲×1門, 二十斤フレッケレー砲×2門이다. (『管轄(2)』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C09112102000, 公文類纂 明治7年 卷13 本省公文 艦船部1(防衛省防衛研究所))

60) 扨를 센티미터로 번역하였다.(김홍수, 앞의 책, 2023, 앞의 책, 71쪽)

61) 日本内閣官報局, 『法令全書』第八卷, 864쪽.

주장은 10월 8일 공식보고에서 단정에서 쏜 신호탄을 운요함에서 식별할 수 있었다는 것처럼 내용을 변경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21일 08:30 운요함은 강화도를 향해 출발하였다. 점차 조류의 흐름이 운항 반대 방향으로 강해지고 있었다. 10:20 운요함은 향산도 제2포대 앞을 통과하였다.⁶³⁾ 여기까지 운항하는데 걸린 시간은 1시간 50분이었다. 평균 속도는 약 2.9knot였다. 조류가 반대 방향이고, 해도 역시 수 년 전 측량한 것이기에 불확실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10:42 운요함은 제3포대 앞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운요함은 초지진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운요함보다 배수량이 훨씬 큰 미군과 프랑스군 군함도 충분히 통과하였고, 조운선을 비롯해 수많은 선박이 오가던 곳이지만 이노우에는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비록 운요함은 일본 군함 중에서 소형함으로 흘수 역시 낮은 축에 속하지만,⁶⁴⁾ 이노우에는 조류가 거세고, 암초가 산재하여 접근하기 어렵다고 보고서에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전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이유가 될 수 있었다.⁶⁵⁾

운요함은 제3포대에서 약 16町(1,744m) 떨어진 곳에 정박하였다. 이노우에는 포격전을 중심으로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사거리를 측정하고자 40파운드포로 선제사격을 했다. 곧 조선군도 대응사격했다. 하지만 운요함의 무장은 포격전을 수행하기에 적

62) Martin N. Murphy, *Small Boats, Weak States, Dirty Money: The Challenge of Pirac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9), pp. 11-12.

63) 제3포대는 1874년 초지진 등에 포대를 축조하면서 함께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64) 『海軍省報告書第一』, 108/133 참조.

65) 실제로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이노우에가 에둘러 이야기한 내용을 확대 해석하여 ‘파열탄 2대는 확실히 성채 안으로 들어갔으므로, 필시 살상이 있으리라고 생각’(『東京日日新聞』 1875년 10월 13일 3면 3단), ‘파열탄 2대는 확실히 성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필시 살상이 있으리라 생각’(『朝鮮軍記』, 67~68쪽)(박한민, 앞의 논문, 2023, <표 1> 재인용)

절하지 않았다. 우선 운요함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100파운드포⁶⁶⁾는 명중률을 신뢰하기 어려웠다.⁶⁷⁾ 40파운드포와 20파운드포는 배의 현측에 고정되어 사격 방위각이 좁았다. 당시 함포 사격은 사거리와 사격 여건 등에 따라 명중률에 큰 차이가 있었다.⁶⁸⁾ 배 위에서 사격하는 것, 특히 거센 조류의 흐름 위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선체 위에서 사격하는 것은 당연히 명중률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었다.

운요함의 사격은 12시 40분까지 이어졌다. 10시 42분부터 12시 40분까지 약 1시간 58분 동안 총 27발을 사격하였다. 발사 속도는 약 4.4분당 1발이었다. 최대 운용 가능한 포문을 고려하여 운요함이 당시 3문으로 사격했다면 1문 당 사격 속도는 약 13분당 1발로 늘어난다.⁶⁹⁾ 발사 속도가 느린 주요 원인 중 하나는 100파운드포의 경우 조각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반면 조선군의 사격 양상을 살펴보면 전날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노우에는 보고에서 탄환의 구경과 탄착지점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⁷⁰⁾ 이를 두고 초지진 포대의 사거리가 짧은 반면 이노우에는 운요함의 무장을 고려하여 사거리를 고려

66) 일부 연구에서는 이를 110파운드포로 기술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1874년 일본 해군 관할 공식 보고서(「管轄(2)」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09112102000, 公文類纂 明治7年 ?13 本省公文 艦船部1 (防衛省防衛?究所))에서 운요함 함포 현황을 살펴보면 '百斤シヤント砲'를 확인할 수 있고, 당시 100파운드포와 110파운드포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식기록에 따라 100파운드포로 기술하였다.

67) Herbert Garbett, *Naval gunnery : a description & history of the fighting equipment of a man-of-war* (London : Bell, 1897), pp. 51-52.)

68) Sir Howard Douglas, *A Treatise on Naval Gunnery* (London, J. Murray, 1855), pp. 377-385.

69) 영국 해군을 기준으로 분당 12발을 사격하였다.(*Manual for Victorian Naval Forces* (1886))

70) 최초보고에는 탄환의 구경이 11~12搨이며, 탄착 지점은 발사지점에서 六~七町 날아와 떨어졌다고 보고하였다.

해 전투했다고 보고하였다.⁷¹⁾ 이 역시 문제가 있다. 당시 조선군 포대에 설치된 화포는 서구의 전장식 청동제 화포가 주력이었다. 이 화포는 사정거리가 운요함의 화포와 비슷하였고, 최소한 600~700m 이상이였다.⁷²⁾

이노우에는 21일 출발 당시 국가적 치욕(‘國辱’)과 군함의 직무(‘軍艦ノ職務’) 등을 언급하면서 전의를 돋우고, 군법까지 언급하며 승조원을 독려했다. 반면 제3포대와 교전 직후 ‘예로부터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경합도 급박하지 않다’고 하면서 후퇴하였다. 그러면서 전투 결과는 전과 보고 없이 단지 함장을 포함하여 전 인원 부상자 한 명 없이 12:56에 이탈했다고 마무리하였다.

13:15에 제2포대 앞에서 정박하여 점심 식사를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군사적 측면에서 사실상 제2포대가 운요함에 별다른 위협이 안된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노우에는 14:40에 향산도에 상륙하였다. 이곳에서 이노우에가 제2포대라고 지칭한 곳을 비롯하여 향산도를 불태웠다.⁷³⁾ 1876년 2월 닛신함이 측량한 후 작성한 정박도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해상에서도 향산도의 구조물을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규모가 정박지와 근접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지진과 달리 ‘口’형태([지도 3] 점선 원)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 그 규모가 매우 작거나, 이노우에 등의 파괴 및 방화로 제대로 복구되지 않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을

71) 김홍수, 앞의 책, 2023, 71쪽. 박한민의 연구(앞의 논문, 2023, 297~298쪽 <표 1> ‘1875년 9월 21일 전투 상황에 대한 『도쿄니치니치신문』과 『조선군기』 수록 기사 비교’)

72) 『德浦鎮砲臺發掘調査報告書』, 김포군, 1980, 36~39쪽. 특히 이때 발굴된 중포(전장식 청동제 대포)의 내부 직경이 11.5cm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제3포대에 설치된 화포에 대한 묘사와 매우 유사하다. 출토된 화포의 경우 1874년 제작된 것으로 시기도 일치한다.(『고종실록』 11권, 고종 11년 7월 17일, 새로 만든 대포, 중포, 소포를 진무영과 영종 등에 나누어 보내다)

73) 김홍수, 앞의 책, 2023, 71~72쪽

정도만 터가 남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기를 포대로 규정하는 것 역시 확신하기는 어렵다. 사료에서 향산도에 포대와 6문의 화포가 배치되었다는 시점이 불분명하고, 향산도의 위치와 지리적 특성상 관측과 접근이 쉽기 때문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향산도를 요충지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 결정적으로 이노우에는 이곳에서 획득한 전리품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도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조선군 관방시설로 볼 수 있는 시설이 있었다는 정도가 될 것이다.

이노우에는 조선군과 교전하고, 섬을 불태웠지만 구체적인 전과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다. 자칫 제3포대의 상황이 재현될 경우 포격을 받고 물러난 것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었다.⁷⁴⁾ 이노우에는 처음 향산도를 지나면서 7~8여 채의 민가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일본 해군의 교전규칙에 따르면 민간인에 대한 살상과 손해를 금지하였다.⁷⁵⁾ 반면 향산도를 불태울 때 민간인과 그들의 재산 보호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스키도민가를 불태운 것을 공공연하게 기술하였고, 일본 언론 역시 어떠한 문제 의식도 갖고 있지 않은 채 기사화하였다.⁷⁶⁾ 향산도 방화는 조선도 인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⁷⁷⁾ 향산도 상륙과 방화는 14:40에 상륙하여 해지기 직전인 18:05까지 이어졌다. 그렇지만 운요함은 별다른 전과를 거두지 못하고, 19:33에 물치도 인근으로 돌아가 정박하였다.

74) 정선교(丁善敎)의 공초에서 1875년 8월 강화도 초지진 앞바다에 나타난 운요함이 조선군의 포격을 받아 퇴각했다고 진술하였다. (『推案及鞫案』 314冊)

75) 「交戦条例」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A03030068700, 単行書・処蕃書類公法類纂四(国立公文書館)

76) ‘朝鮮戰爭の景況少しく詳なる報を左に記す’, 『朝野新聞』(1875.10.9.) (박한민, 앞의 글, 2023, 재인용)

77) 『고종실록』 12권, 고종 12년 8월 24일

5. 영종진 침탈 : 4일차(9월22일) 05:00부터 6일차 (9월24일) 10:30까지

이노우에는 21일까지 임무를 완수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타국 영해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공법까지 위반하면서 조선군과 교전을 했지만, 근거는 오로지 이노우에의 주장뿐인 상황이었다. 단순히 교전 사실만 입증한다고 임무를 완수하는 것도 아니었다. 무력시위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압도적 우위를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전리품이라도 있어야 조선군과 전투를 했고, 일본의 무력적 우위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다시 제3포대를 상대로 교전을 시도할 수는 없었다. 운요함의 전력을 고려할 때 4문의 함포와 9명의 해병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무시하고 공격할 경우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 있었다. 상륙전시 활용할 수 있는 포병 화기조차 없었다. 만약 운요함에서 함포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륙 병력은 개인화기만으로 제3포대의 조선군을 상대해야만 했다. 만약 제3포대에 주둔한 조선군이 정예라면 병력의 양적인 수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역량 면에서도 운요함의 전력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뿐만 아니라 조선군의 증원도 고려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경우 그 무엇도 보여줄 수 없었다. 사진 등 기록 저장 매체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이를 증언해줄 제3의 관전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전과를 입증할 수 있는 전리품이 필요

했다. 비록 영종도는 강화도에서 10여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바다 건너편에 있었지만, 영종진은 전과를 거둘 수 있는 곳이었다. 더 중요한 점은 운요함의 전력상 전공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영종진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과 이마저도 시간이 흐르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한강 하구를 침범하여 강화도와 항산도를 공격한 소식이 언제 어떻게 알려질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여기에 항산도에서 저지른 만행은 쉽게 용납하기 어려운 짓이었다. 만약 이러한 소식이 알려진다면 방비를 강화하여 공격이 어려워 질 수 있었다.

이노우에는 조선에 도착한 이후 가장 이른 시간에 작전을 개시하였다. 22일 일출 시간은 06:20이었고, 항해박명은 05:22이었지만, 05시에 기상하여 05:55에 영종도로 출발하였다. 활동이 가능한 시민박명은 05:53이지만, 운요함은 시야가 확보되는 시점에 바로 영종도를 향해 출발하였다. 지난 이틀간 아무런 전과도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항산도까지 별다른 전과 없이 민가까지 불태운 상태였기 때문에 영종도에서 전과를 올리지 못할 경우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연한 것이지만 운요함 역시 한정된 적재 능력상 가지고 온 탄환과 탄약 역시 수량이 한정되었다. 전과를 거둘 때까지 조선군과 소모전을 계속하면서 머물 수도 없었다. 이미 제3포대와 교전하면서 27발을 사격한 상황에서 항산도에서 추가 사격이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교전이 반복될 경우 탄환이 부족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영종도에서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승리했다는 증거로 전리품을 챙길 필요가 있었다. 정박지에서 05:55 출항하여 영종성 인근에 도착한 것은 06:16이었다. 이노우에는 매섬 인근이라고 표현했지만, 스즈키의 편지에 따르면 영종도에서 2해리(원문에는 리) 정도 떨어진 곳에 전날 정박

했다. 이를 고려한다면 약 3.7km정도 이동하는데 1시간 23분 정도 걸렸다. 평균 운항 속도는 약 2.7knot에 불과하였다. 물치도에서 범섬 방향으로 흐르는 조류 때문에 운요함으로 영종도에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유속이 점차 누그러지면서 06:18 이노우에는 전투준비를 지시하고, 각 포에 유탄을 장전했다. 그렇지만 사격을 개시한 것은 1시간 후인 07:18이었다. 운요함은 영종도에서 약 8町 떨어진 곳까지 나아간 후 사격을 개시하였다. 이노우에는 제3포대에서 조선군과 전투 당시 사거리를 고려하여 ‘먼 바다’(거리)를 두고 사격했다고 보고했지만, 영종진(이노우에는 영종성이라고 보고) 공격은 이전 조선군 포대 사거리 인근까지 접근하여 사격하였다.⁷⁸⁾

운요함의 기습적인 함포 사격에도 불구하고, 운요함 함포 문제와 영종진의 지형 상 특성으로 명중탄이 거의 없었다. 실제로 운요함의 포격은 실효성있는 전술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운요함에 탑재한 암스트롱사의 RBL은 명중률이 높기로 유명했지만 상대적으로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했다. 통상 결과 보고에서 전과는 과장하기 마련이지만, 이노우에도 영종진에 명중한 탄은 언급조차 하지 못하였고, 그나마 한 발이 성 내에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그나마 성 내에 떨어진 탄이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알 수도 없기에 명중탄이라고 보기도 어려웠다. 당시 일본 신문기사도 포탄이 성 내에 떨어졌으니 살상이 뒤따랐을 것이라고 기대를 섞어 보도하였다.

조선군도 대응 사격을 하면서 대응태세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78) 이노우에의 보고에서 강화도와 영종도 포격 간에 조선군 사격 능력에 대한 평가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은 이노우에의 보고가 갖고 있는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노우에가 보고에서 언급한 조선군 사격 능력에 대한 평가는 군사적 평가에 기반한 것처럼 묘사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의도, 이를테면 정치적 의도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시간이 더 지체하면 영종진이 있는 섬과 다리로 연결된 섬에서 증원 병력이 올 수 있었다. 여기에 조선 수군도 올 수 있었다. 더 이상 함포 사격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남은 것은 상륙하여 섬의 증원을 최대한 막으면서 공성전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노우에는 영종진에 상륙과 공성을 시작하였다.

7시 39분에, 성곽 앞에 정박하여 2척의 배를 내려 육전을 준비하였다. 오가사와라(小笠原) 중위, 호시아마(星山) 중기관사, 쓰노다(角田) 소위, 야시마(八洲)少主計, 다카다 마사히사(高田政久), 진구지(神宮寺) 소위보, 총병 22명을 이끌고, 7시 43분 단정 두 척을 타고 출발하여 해안에 접근했다. 조선군(필자)의 포대에서 계속 발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저하지 않고 상륙하는 일본군 역시 발포하며 전진했다. 이곳은 앞서 단정으로 육지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곧바로 바다에 뛰어들어 큰 함성을 지르며 성문에 육박했다. 적 또한 강하게 지켜내어 굽히지 않고, 이때 약 8분 정도가 특히 격렬한 전투였다. 동문은 쓰노다 소위와 진구지 소위보가 엄격하게 명령을 내리고 소리치며 성벽을 넘어갔다. 이때 운요함(필자) 수부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보다 먼저 야시마 소주계는 북문에서, 오가사와라 중위와 호시아마 중기관사는 서문에서 각각 진출하여 여러 곳에서 불을 지르며 계속 발포하고 고성으로 소리를 내며 동시에 진격의 나팔을 불며 급작스럽게 세 방향에서 공격하여 결국 수비를 버리고 달아나는 자가 수백명에 이르렀다. (이때 성내 인원은 대략 500명 가량으로 목격되었다).

영종진은 1872년 지방도를 토대로 살펴보면 만세교 방향이 서문이고, 배터 쪽이 동문이었다. 봉대와 병사들이 머무는 곳은 남문 쪽에 있었다.⁷⁹⁾ 이노우에는 상륙 병력을 3개 부대로 나누어 2개 부대가 관심을 끄는 동안 1개 부대가 주공으로 성을 넘어가

는 것으로 하였다. 여기서 주공은 쓰노다 소위 등의 부대로 동문 쪽으로 공격하였다. 나머지 두 부대는 북문과 서문에서 먼저 접근하여 불을 지르고, 소리를 질러 조선군을 견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이노우에는 승조원 중 비전투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야시마 소주계(경리)⁸⁰를 비롯해 호시야마 중기관사(항해) 등도 상륙 인원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해병을 주축으로 소총병(원문은 총대) 22명을 편성하였다.⁸¹

운요함 사건 직후 조선 정부는 영종진 방어 실패를 지휘 체계상의 문제로 보았다.⁸² 당시 영종진의 조선군은 운요함의 기습으로 대응이 늦어졌고, 일본군의 상륙을 그대로 허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고두보가 될 수 있는 동문 앞 배터와 상륙 직후에 만세교를 상실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반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조선군이 자리를 사수한 결과로 평가하였다.⁸³

이노우에는 08:20 나팔로 퇴군 신호를 보내 동문 앞에 상륙 인원을 집결시켰다. 이노우에는 조선군의 역습 등에 대비해 만세교에 척후병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전리품을 챙겼다. 이노우에가 영종진에서 노획한 것은 대포 36문⁸⁴을 비롯하여 소총, 검, 창 등이었다. 이후 성을 불태웠다. 이노우에가 영종진에서 철수한 것은 21시 59분이었다. 이날 밤에 이노우에는 등불까

79) 1878년 2월 일본 해군에서 측량하여 작성한 ‘일미도해협도’에 표시된 영종성의 경우 만세교 쪽에 우물이 표시되어 있고, 특이한 점으로 만세교 쪽의 성곽이 마치 치와 같은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측의 동문에는 용성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朝鮮国京畿道月尾島海峡略測図(1877) 참조)

80) 스키의 편지에는 야부치(八淵)로 되어 있다. (『雜錄』, 『朝野新聞』(1875.10.13))

81) 박한민, 앞의 글, 2023, 299~300쪽.

82) 『승정원일기』 고종 12년 8월 26일 ; 『승정원일기』 고종 12년 8월 29일

83) 『승정원일기』 고종 12년 8월 29일

84) 이노우에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당시 대포 36문에 대해 銅製砲 21문, 銅製後裝砲 14문, 銅製臼砲 1문이다. 여기서 銅製後裝砲는 불랑기로 보이며, 銅製砲는 새로 보급한 전장식 청동 대포로 보여진다. 銅製臼砲는 대완구와 같은 형태의 포로 보여진다.

지 켜고 악기까지 연주하며 술 잔치를 벌이고 새벽까지 휴식하였다. 23일 운요함은 10시쯤 남은 전리품을 싣고, 11시 출발하여 오후에 소도 앞에 정박하였다. 24일 오전에는 인근에서 물을 보급한 이후 일본으로 귀항하였다. 중간에 태안 인근에서 하루를 머물렀다. 28일 10:49에 나가사키 항에 도착했다. 복귀에는 4일이 걸렸다.

6. 결론

1875년 한일 간의 국교 재개 교섭이 난항 속에 빠진 상황에서 일본은 무력 시위를 통해 교섭을 조석히 타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군함으로 동원하였고, 운요함과 다이테이보함은 부산에 도착하였다. 운요함은 5월 25일 입항한 후 훈련을 빌미로 함포 사격을 하고, 해로 연구를 내세워 동해안 일대에 점탐을 하였다. 이때 운요함 등의 무력 시위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오히려 조선의 강경 대응을 불러왔다. 운요함장 이노우에는 이런 상황에 변화를 꾀하고자 단독으로 서해안을 따라 거슬러 올라왔다.

운요함은 9월 19일 강화도 인근 해역에 도래하였다. 운요함은 월미해협을 통과하여 20일 물치도 일대에 정박하였다. 이노우에는 정찰 등을 명분으로 단정도로 갈아타고 강화도 인근의 한강 하구 수로를 정탐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군을 상대로 도발하였지만, 조선군의 경고성 사격을 받고 물러났다. 21일 이노우에는 조선군의 경고성 사격을 국가적 치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복을 내세우며 운요함으로 강화도와 항산도를 포격하였다.

22일에는 영종진을 기습적으로 포격하고 병력을 상륙시켜 불법적으로 점거하였다. 이노우에는 영종진을 약탈한 후 노략품을 싣고 철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노우에는 운요함으로 강화도 인근까지 올라와 무력시위를 하였고, 강화도 입구의 향산도를 공격하여 섬의 주민을 학살하였다. 이후 영종진을 공격하고 약탈하였다. 조선 개항의 빌미가 되었던 운요함 포격 사건에 대한 기존 연구는 군사사적 연구를 배제한 채 주로 정치 및 관계사적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여기서는 사건의 전개 과정을 군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시간대별 진행 상황을 작전 환경적 측면까지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이러한 운요함 포격 사건에 대해 기존 검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었던 사항을 재검토하여 군사적 행위에 대해 시계열적으로 재구성하였다.

<Abstract>

The military reconstruction of the 1875 Unyo Incident

Shin, Hyo-seung

Un'yō incident was one of Japan's main arguments in the Japan-Korea Treaty of 1876. For this reason, the so-called "Unyoho Incident" has been studied in Korea and Japan in many aspects, and the results have been accumulated. However, these studies have been utilized as a vehicle to examine the subsequent historical changes, such as the course of Japan-Korea relations, rather than the course of the incident itself. For this reason, the main debate on the Unyokham incident has also centered on Japan's intentions.

Here, we review the unfolding events of the Unyōhama shelling in detail, separated by time period. In particular, the military aspects of the incident, such as ships and weapons, are analyzed, along with geographical factors, including maritime characteristics, such as tidal changes and flow rates, and the environment along the west coast where the incident took place. This detailed analysis of the military aspect of the event provides a detailed progression of how the bombardment of the Unyōshima unfolded.

keyword: Un'yōham, Un'yō incident, ganghwa island incident, joseon guardian jogyu, japan navy, joseon diplomacy, yongjongjin, ganghwa island, japan navy, joseon military, port opening